

토마스 흄스

1) 자연 상태

정부와 사회, 빈과 부, 선과 악, 정의와 불의조차 존재하지 않던 때에 인간이 태어난다.

인간은 태어나길 이성적이지만 이기적이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동도 서슴치 않을 권리(自然權)를 가진다.

이 권리를 자연권이라 부르며, 인간은 자기보존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자연권의 행사에 제한이 없다.

모두가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때의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의 무한한 자연권은 잔인함을 부른다. 누군가를 죽이든, 무엇을

파괴하든 자신을 위한다는 목적 아래 있다면 당연한 것이 된다. 본인만이 자신에 대한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는 모두가 모두를 해할 수 있는 때이며, 이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 한다.

자연은 그 신체와 정신의 능력 면에서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했다. …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갖는
‘희망의 평등’은 ‘능력의 평등’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소망하나 그것을 두 사람 모두가 향유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적이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보존이나, 때로는 쾌락이 되기도 하는 그들의 목적 달성을 과정에서 서로를 파멸시키거나 굴복시키려고 노력한다.

… 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는 소유도 지배도 없고 내 것과 네 것의 구분도 없다. 거기서는 다만 자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자기 것이 되는데, 그것도 자신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지킬 수 있는 동안만 그러하다. 단순한 자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으로 충분할 것이다.

2) 사회 계약의 발단

개인은 삶을 원하나, 매우 험난한 자연 상태 속에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생존을 바라던 인간들은, 언젠가 이성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평화의 조항을 인식하게 된다.

이 평화의 조항을 자연법이라 부르고, 자연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고, 그를 따르는 한 무한한 자연권을 포기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허용한 만큼의 자유를 갖는 데 만족하라.

위 내용과 기준의 생존욕구에 의거하여, 만인은 자발적으로 폭력과 죽음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사회를 수립하기로 계약을 맺는다.

공통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 정의와 불의는 … 고립된 채 살고 있는 인간(자연 상태의 인간)이 아니라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계약 후의 인간)과 관계있는 속성이다.

3) 사회 계약의 내용

모든 개인은 평화를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자연권을 자발적으로 한 존재에게 양도하고, 그렇게 국가가 발생한다.

구성원의 평화를 조건으로 자연권을 양도받은 존재는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며, 국가의 유일한 주권자가 된다.

자발적으로 자연권을 양도했음은 계약자들이 평화를 목적으로 일어날 리바이어던의 모든 행위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평화가 목적인 행위에 대해 국민은 저항할 수 없으며, 리바이어던의 주권은 물수될 수 없다.

그러나 리바이어던(주권자)가 구성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해치려 한다면, 이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저항할 수 있다.

… 그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인물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함으로써 그들 모두의 의지를 다수의 소리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곧 그것은 한 인물 또는 한 합의체를 지명하여 그들의 인격을 대변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자가 공동의 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영역에서 행한 것 또는 행하도록 초래한 것이 무엇이든 그들 각자가 그렇게 한 장본인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자신들의 판단을 그의 판단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EBS/기출 심화 제시문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내가 나 스스로를 통치하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것은 너도 너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하고 그의 모든 활동을 마찬가지로 승인하는 것이다.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는 이유는 자기 이익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이다. 만인이 만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며, 이렇게 세워진 하나의 인격은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다.

1. 인간은 이성을 지녔고, 자연 상태에서의 **악행** 때문에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 X!

- 자연 상태는 선과 악, 빙과 부, 정의와 불의조차 존재하지 않음.

2.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권을 양도한다. O!

3. 인간은 계약을 통해 군주에게 자신의 **생명 보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 X!

- 군주가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치려 한다면, 이는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구성원은 자기 보존의 권리를 행사(=저항)할 수 있다.

4. **현명함을 갖춘** 통치자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X!

현명함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강한!!!

5. 국가의 형성 이후에도 시민은 국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 제도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제한된다.

또한 자연권 중, 스스로의 보존을 위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기출 선지

[2022학년도 수능]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을 떨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인간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구속한다.

[2023학년도 6평]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경쟁, 불신, 공명심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은 사회적 동의로 절대 권력을 수립한다.

- ㄱ. 공권력이 형성된 이후에 자연권 보호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정부(리바이어던)의 책임이다.
- 애초에 자연권 보호를 목적으로 리바이어던과 계약했으니까.

ㄴ.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 해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

[2023학년도 9평]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 ④ 법을 제정하는 자는 리바이어던이며,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자이다.

[2023학년도 수능]

자연 상태에서, 즉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정의는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것이며, 계약의 유효성은 국가 수립과 함께 시작된다.

[2024학년도 6평]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며, 소유도 지배도 내 것과 네 것의 구별도 없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죽음의 공포라는 정념과 평화 추구의 이성에 있다.

- ㄱ.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
- 법이나 제도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2024학년도 수능]

만인은 서로 늑대처럼 싸우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호 계약을 맺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해야 한다. 이 인격을 지닌 통치자는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

- ㄱ.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ㄴ.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한다.

- 국가의 부재는, 계약의 미체결을 의미함 = 자연상태.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있었던가?

[2025학년도 9평]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리바이어던이 없는 곳에서는 법과 저으이 그리고 소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2025학년도 수능]★★

자연은 신이 세계를 창조하여 다스리는 기예이다. 이 자연을 인간의 기예로 모방하여 인공적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국가라고 불리는 위대한 리바이어던이다.

ㄱ. 절대 군주는 모든 인간의 사회 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다.

해당 선지를 두 가지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1. 절대 군주가 모든 인간의 사회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강제하는가?** X

군주는 사회 계약 체결 이후에 형성되는데, 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2. 절대 군주는 **모든 인간**의 사회 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다.

인간을 지구인이라고 치환하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모든 인간이 한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리바이어던 하나에 지배당하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상하죠.

모든 인간이 아닌, '계약자들'이어야 그나마 맞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가 맞는 말이 되려면 이렇게 고쳐야 하겠습니다.

"절대 군주는 모든 계약자와 맺은 사회 계약의 이행을 강제한다."

존 로크

1. 자연 상태

로크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가정합니다.

자연상태의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납니다.

이때의 자유는 타인 또는 권력에 귀속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상태의 자유와 이성 모두 하느님이 내린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법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연법은 소유, 생명 보존, 평화 추구를 내용으로 합니다.

이 때 소유권은,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것을 향유할 권리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다음과 같은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는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필요와 편리 또는 성향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나아가 이해력과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은 타인을 의식할 줄도 아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소유권을 무한히 행사하면 남의 것을 빼앗게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소유권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연 상태 또한 사적인 지배권이 행사되는 일종의 사회 상태입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건 즉, 자원이 배분된다는 말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가지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빈부가 구별되겠죠. 때문에 자연 상태에 불평등이 생깁니다.

처음엔 모두 평등하게 태어나는데, 시간이 흘러 자원이 배분됨에 따라 불평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담으로, 위와 직결되는 이유는 아니지만 로크는 노예 또한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불평등이 존재할 만큼 시간이 흐른다면 필연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겠죠.

서로가 같은 물건에 대하여 다른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분쟁으로 번집니다.

그러나 이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둘은 서로 자신의 자연권만을 주장하거든요.

결국 자신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한 집행관이자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솔이랑 해원이가 둘 다 A라는 물건을 자기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네는 공통된 법이 없어요. 해원이 것도 맞고, 진솔이 것도 맞고, 갑자기 규진이가 나타나서 자기 거라 주장해도 맞는 거예요. 서로가 자신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해원, 진솔, 규진 모두 자신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 분쟁은 누군가 죽어야만 끝나리란 걸 느낀 규진, 해원, 진솔은 이를 중재해줄 가장 객관적인 사람의 필요성을 절감해요.

이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 개인이 공통된 법을 통해 해결하고,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장받고자 하는 이 의지가 사회 계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답할 수 있다. … 모든 사람이 그와 평등하며 또 그들 대부분은 형평과 정의의 엄격한 준수자들이 아니므로 그가 이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향유는 매우 불안하고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2. 사회 계약

이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나의 사회를 결성합니다.

이때 계약의 당사자는 명시적 동의를 하게 됩니다.

명시적 동의는, 직접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말하거나 문서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는 공동체에 대한 영구적인 복종의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묵시적 동의는, 직접 말하진 않지만 그 법률에 따르고, 혜택을 누리기로 동의하는 거예요.

이는 공동체에 대한 일시적인 복종의 의무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은 자연법 집행권을 어떤 정치공동체에 양도하고, 이들은 국가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됩니다.

이 주권은 국가 내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양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인민이라 부릅니다. 인민은 the people로 번역하죠?

생윤에서는 시민으로 번역하구요.

그러니까, 자연법 집행권을 양도한 개인의 집합이 양도받은 공동체입니다.

띠용? 지가 지한테 힘을 준다고? 무한동력임?

아니요. 이는 사회 계약의 목적에 적확히 들어맞습니다.

자연상태의 분쟁이 개인의 수만큼 집행권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자신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한 집행관이자 재판관.

그런데 그 집행권을 한 데 모아서, 공동체의 집합적 권력으로 만드는 것으로

사회 계약의 목적인 '공통된 재판관을 지상에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을 양도받음으로써 공동체는 사회 계약의 목적,

개인의 재산(생명, 자유, 자산)을 보호할 의무를 갖습니다.

즉 양도되지 않은 권리인 생명 또한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수행하는 수단이 양도받은 권력이며,

그 권력은 재판권과 처벌권 등이 있겠습니다.

이 같은 권력의 양도는 하나의 정치사회를 결성하고자 단순히 합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합의야말로 공동체에 가입하거나 그것을 결성하는 개개인들 간에 실제 체결되고, 또 반드시 체결될 필요가 있는 협정의 전부이다. … 그리고 다수결을 산출할 수 있는 일정 수의 자유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사회를 결성하기로 동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직 이것만이 지상에서 모든 합법적인 정부를 출범시켰고, 또 출범시킬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계약을 통해 자연법 집행권의 권력을 위임하는 주체와 위임받는 주체 모두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공동체로써의 인민은, 사회 계약 전의 자신들로부터 자연법 집행권을 양도받습니다.

이후 인민 개개인은 계약의 결과물인 정치 사회에 대한 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3. 통치 계약

이후 공동체는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신의 권위(또는 주권의 권력)를 정부에 위임합니다.

이 과정을 신탁이라 합니다.

이를 통치 계약이라 하며, 위탁하는 과정을 신탁, 권위를 위임받은 정부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건, 주권 자체가 위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권은 양도 불가능하니까요.

권력을 신탁받은 정부는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을 가지게 되며, 이를 행사할 권리도 갖습니다.

집행권과 연합권은 입법권에 귀속됩니다.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권

정부의 권력 중 최고의 권력, 인민의 동의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함.

구성원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동의 없는 과세 불가능.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인민이 설정한 곳(입법부) 이외로 위임할 수 없음.

집행권

제정된 법을 사회 내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집행.

연합권

전쟁, 평화의 선포

조약과 동맹 체결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외교 담당

4. 저항권

그러나 위 권력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재산(생명, 자유, 자산)을 보호할 의무,

즉 사회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민은 국가 내에서 가장 강한 힘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권의 행사 등, 정부에 의한 통치가 사회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을 인민이 알게 된다면,

인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항권은 폭력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저항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를 폐지하는 것이 사회 자체를 폐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사회 계약 이후에 수립된, 주권의 보호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니까요.

뿌수고 한 번 더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권은, 위에 말했듯이 사회계약의 목적에 어긋날 때에만 정당합니다.

입법부가 사회에 그토록 필요한, 그리고 인민의 안전과 보존이 결여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무력에 의해서 방해받을 경우,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권한 없는 힘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치유책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권한 없이 힘을 사용하는 자는 항상 침략자로서 전쟁을 자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와 같이 취급되어 마땅하다.

EBS/기출 심화 제시문

국가는 사람들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 존재한다. 국가의 통치자는 국민에게 공포된 법률로 다스려야 하며,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임명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공동체의 물리력은 오직 법의 집행을 위해, 그리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입법부를 선출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진 재산의 보호 수단이자 울타리로서, 그 사회의 각 구성원이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고 지배력을 억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규칙을 만드는 데에 있다.

1. 인간은 자연권 보호를 위해 정치 사회 형성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2.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소유물 보전을 위해 형성된 수단적 공동체이다.
3. 인민은 자신들이 선출한 입법부를 자의적으로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입법부의 행위가 계약 목적에 위반할 시에만 저항할 수 있다.
4.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다른 곳에 양도할 수 없다.
5. 입법부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탁된 범위 내에서만 다룰 수 있다.
6. 입법부는 주권을 선택받는다.

기출 선지

[2022학년도 6평]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이 없고, 무사 공평한 재판관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 하에 두고자 한다.

②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가진다.

- 사회 계약 목적에 따라 구성원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고, 이는 연합권을 통해 행사

[2022학년도 9평]

본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간에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ㄷ.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 형성되는 자연적 공동체가 아닌, 소유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형성된 인위적 공동체이다.

[2022학년도 수능]

모든 인간은 자기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이 권리의 향유가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인간은 공동체를 결성하고 공통의 재판관을 지상에 설정함으로써 국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2023학년도 6평]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입법부가 자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신탁을 철회할 수 있다.

[2023학년도 수능]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연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력을 가진다. 이 처벌권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 사회가 존재한다.

① 자연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모든 당사자는 재판관이 된다.

[2024학년도 9평]

사람들은 자연법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는 그들을 공통된 법률의 지배 하에 둠으로써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ㄱ.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 계약자는 사회 계약을 체결하며 자연권의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한다.

자연권은 생명권을 포함하고, 재산은 생명을 포함한다.

그렇기에 국가는 양도되지 않은 생명권 또한 사회 계약의 목적에 따라 보장해야만 한다.

ㄷ. 자연 상태에서 분쟁은 **공통된 자연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성으로 **자연법을 파악**하며 그에 따라 살아간다.

이 자연법은 하느님이 인류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편적인 것이다**.

자연 상태의 분쟁은 각자의 소유권이 충돌하며 일어나는 것이다, 자연법의 부재로 인해 일어나지 않는다.

[2024학년도 수능]

절대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합의는 여우나 스컹크를 피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데 만족하는 것과 같다. 통치자가 시민의 생명, 자유 및 자산을 보존하지 못할 때 시민은 통치자에 저항할 수 있다.

르.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단지 신탁된 권력만이 주어진다.

[2025학년도 9평]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의 소유 보존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는 이를 위한 많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ㄷ.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으며, 되려 이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

[2025학년도 수능]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이다.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ㄷ. 자연 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 소유권이 존재하긴 하나, 이것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홉스는 자연상태에서부터 노예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하느님은 인간을 다음과 같은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는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필요와 편리 또는 성향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나아가 이해력과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도록 만들었다.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기에 주인과 노예 간의 사회가 추가되었다.